

전북도, 농촌인력 다각적 지원 추진

농촌인력 증개센터·농작업 대행·외국인 계절근로자·자원봉사 등 통해 상반기 9만7266명 지원

전북도가 농촌인력 증개센터, 일손 돕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 다각적인 인력지원 방안을 추진하며,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나서고 있다.

전북도는 다양한 농촌인력지원 대책을 통해 올해 6월 말까지 총 9만7,266명의 농촌인력을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만285명보다 61.3% 증가한 수치다.

도내 30개소의 농촌인력 증개센터를 통해 8만410명을 지원했고, 농작업 대행 5,015명, 외국인 계절근로자 807명, 일자리센터 1,773명, 자원봉사 등을 통해 9,261명의 인력을 지원했다.

전북도는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농촌지역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난 3월 15일부터 도와 시·군, 농협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농업 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하며, 지역 내 농작업 추진현황 및 인력 수급 상황을 주 2회 모니터링하며, 다양한 지원 방안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농촌인력 증개센터를 지난해 28개소(상반기 19개소 + 하반기 추가 9개소)에서 올해 30개소로 확대했다. 센터 내 영농작업반(319반 5,129명)을 총가동해 인력 8만410명을 지원, 지난해 같은 기간 4만7,916명 대비 증가율이 67.8%가 증가하는 등 농촌인력 지원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공무원과 유관기관 및 사회봉사 명령자 등 9,261명도 실시일반으로 농촌 일손 돕기에 참여해 지난해 동기(7,638명) 대비 참여실적이 21.2%가 증가하는 등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시름을 덜어줬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35명을 확보해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에도 노력했다.

지난해에는 총 1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도입(한시적 계절근로자 14명)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을 활용하는 '한시적 계절근로자' 32명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농가에 배정됐으며, 해외(베트남, 결혼이민자 친척 추천)에서도 3명이 국내에 입국해 농가에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무주군과 우즈베키스탄(2021. 4. 28.), 고창군과 베트남 까마오성 전 바터이군(2021. 6. 24.)의 업무협약을 통해 7~8월경에 100여 명 정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도입(입국)될 예정이다.

특히, 무주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시범사업(50명 예정)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 하반기에는 도시구직자를 모집해 지역 농촌인력 증개센터와 연계, 일자리를 증개하는 도시형 인력 증개센터 사업과 농가에 1~3개월간 인력을 파견하는 내국인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사업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계절성을 지닌 농작업의 특성상 농번기 인력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상황을 통해 인력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농촌인력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 농업인이 원활하게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지방세 신고·납부 '위택스'도 카카오페이코로 본인 인증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도 카카오페이코로 본인 인증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부터 위택스에 민간 전자서명인 간편인증증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위택스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뿐 아니라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으로도 가능하다. 카카오페이, 통신3사 패스(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다.

간편인증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고, 위택스에 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또 위택스로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취득세를 통상 취득일부터 60일 내에 신고·납부시 일부 금액을 여러 결제 수단으로 나눠 낼 수 있지만 그간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했다.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는 신고·납부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회까지 가능하다. 위택스 부가 서비스 메뉴에서 분할납부 신청 후 분할 횟수·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납세의무자 본인이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추후 배우자와 세무대리인 등 제3자 납부까지도 확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하반기 중 위택스 문자(SMS) 인증과 모바일 간편인증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위택스에서 간편인증증을 통해 로그인한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지급 이벤트를 진행한다. /뉴스



“방역지침 위반 시 단호한 법적조치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도, 여름철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점검 추진

전북도가 여름철 수산물에 의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공관장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점검을 오는 21일까지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유통단계 위생 점검을 통해 수산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도내 수산물 위·공관장 총 7개소다.

위관장은 군산시 수협에서 해방동, 비유항 등 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고창군 수협과 부안 수협도 각 1개소씩 운영 중이다.

공관장은 수협 중앙회에서 전주농수산물공판장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화학원, 시·군 및 수협과 합동

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수산물 보관 온도, 설치류 등의 유입 방지 등 수산물 위생안전을 중점 점검한다.

식중독의 종류로는 미생물, 자연독, 화학적 식중독 등이 있으며, 주로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으로는 미생물 식중독 중 세균 및 바이러스성 식중독에 속하는 노로바이러스,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균 등으로 감염되면 구토, 설사, 발열 및 복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 /유호상 기자

韓소방관 1명당 국민 859명 담당

선진국 대열에... 日보다 많아

지난해 소방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평균 인구가 800명 중반대로 줄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119 신고·출동 횟수는 감소했다.

소방청은 '2021년 소방청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통계연보에는 화재 발생 및 119 구조·구급 현황, 소방헬기 운항 등 총 69개 분야 188종의 세부통계표가 담겼다.

특히 '2020년 시·도소방본부 소방안전교부세'를 새롭게 수록했고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표로 본 통계'를 작성했다.

지난해 말 기준 통계를 보면 소방관 수는 6만994명으로 1년 전의 5만6629명보다 7.7% 증가했다. 이 중 여성 소방관의 비율은 9.3%(5649명)로 1년 전보다 6.1%(350명) 늘었다.

소방관 1명당 담당 인구는 2019년 926명에서 지난해 859명으로 7.2% 감소하면서 선진국 수준이 됐다. 현재 일본의 소방관 1명당 담당 인구는 779명, 미국은 911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소방관 2만명 충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가 768명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화재·구조·구급 활동건수는 일제히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영향으로 보인다. 화재 발생건수는 3만8659건 발생해 1년 전보다 3.6%(1444건) 줄었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도 1년 전보다 9.3%(234명) 감소한 2281명이다. 화재 및 인명별로는 '부주의'(49.6%·1만9185건)가 절반 가까이 차지해 가장 많았다.

119구조대는 지난해 83만8194건 출동해 66만5744건의 구조 활동을 통해 8만6714명을 구조했다. 출동건수로는 전년 대비 6.2%(5만5412건) 감소했다.

119구급대는 지난해 276만6136건 출동해 162만1775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출동건수로는 전년 대비 5.6%(16만3858건) 줄었다.

소방헬기는 5671건 출동을 나가 1925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출동건수로는 전년 대비 5.3%(319건) 줄어든 수치다. /뉴스

국제회의 유치·교류 활력 기대

도, '전북도문화관광재단' 마이스 전담 기구 '마이스뷰로'로 지정

전북도가 전북도문화관광재단을 전북도 마이스 전담 기구인 '마이스뷰로'로 지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마이스뷰로'의 역할은 국제회의 유치 가능 국제회의 발굴 및 유치·개최, 마이스 마케팅 활동 및 마이스산업 기반 조성, 마이스 정보 수집·제공, 전국 마이스기관 교류 활동 등이다.

도는 그 첫걸음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한국마이스산업발전협의회(Korea MICE Alliance)'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마이스산업발전협의회'에는 마이스뷰로와 같은 전담 기구만 가입할 수 있고, 회원기관이 되면, 한국관광공사의 지역 마이스 활성화 사업(기금) 신청이 가능(1억5천만 원 상당)하며, 전국 마이스 기관과 교류를 통해 국제회의 유치 및 네트워크 활동이 왕성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전북도는 열악한 마이스산업 환경에서도 전북만의 매력적이고 독특한 마이스 회의 가능 시설들을 발굴해 전북도 유니크메뉴(5개소)와 예비 유니크메뉴(5개소)를 선정했다.

아울러, 회의 장소와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관광숙박시설 투자유치 및 투자보증금을 지원해 오는 등 발걸음을 재촉해 왔다.

또한, 전북·서울 마이스 공동 마케팅 협약을 체결(4월)하고, 전북 아태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4월),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6월)에 참가해 홍보관을 운영했다.

하반기에도 마이스 전문가를 초청해 도내 마이스 시설과 유니크메뉴에서 팸투어 및 설명회를 개최(9~10월)하고, 새만금 오토 & 레저캠핑쇼(9월)를 GSCO에서 두루 펼칠 예정이며, 전북 핵심산업 전시회(3회)도 지원할 계획이다.

윤여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마이스뷰로 지정은 계기로 전북도 마이스산업에 활력이 넘치게 되길 희망하며, 지속가능성 있는 마이스산업이 되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